

漢詩로 읊은 「謝氏南征記」

—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의 분석 —*

류 준 경 **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사씨남정기」 한시화의 의미 |
| II.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의
구성적 특징 | IV. 나가며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사씨남정기」를 서사한시로 읊은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씨남정기」의 수용양상과 한시화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작품의 창작시기와 창작의 원천이 된 「사씨남정기」의 텍스트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작품은 대략 18세기 중반경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며, 창작에 참조된 「사씨남정기」 원텍스트는 김만중이 창작한 국문본 계열이 아닌, 김춘택이 한문으로 번역한 「사씨남정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작품의 서사적 특징에 대해 「사씨남정기」와의 서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씨의 남정 부분만 사씨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나머지는 모두 유연수의 시점에서 서사가 구성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씨남정기」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교씨의 문제에 대해 크게 주목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newjune@sungshin.ac.kr

하지 않고, 주로 유연수와 사씨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주요하게 처리하는 특징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그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서 유연수와 사씨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부분이 부각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모에 따라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는 「사씨남정기」와는 구별되는 주제의식을 구현하게 되었다. 가부장제의 모순이나 축첩제의 현실 등이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사씨와 유연수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사랑이 부각되었다. 부부가 겪은 여러 고난과 그 속에 피어나는 서로간의 사랑의 감정이 작품의 주지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인공 사씨의 형상은 「사씨남정기」에 나타나는 이념적 인물이 아니라, 보다 생동감 있는 인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18세기 향촌사대부의 「사씨남정기」 읽기의 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서사한시 창작을 통해 새로운 「사씨남정기」를 구현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敘事漢詩, 柳振漢,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 「謝氏南征記」

I. 들어가며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는 「사씨남정기」를 한시로 읊은 七言 140句¹⁾의 한시 작품이다. 작가는 영조 연간 충청도 목천에서 활약한 晩華 柳振漢으로, 「만화본 춘향가」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진한의 「춘향가」의 경우, 꽤 많은 선행연구가 있으나²⁾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의 경우는 자료 소개 수준의 연구 외에는 특별히 연구된 것이 없는 실

1) 여기서 1구는 內外句를 합친 것이다.

2) 김동욱, 『증보 춘향전연구』, 연세대출판부, 1976.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 연구」, 『문학과 언어』 12, 문학과언어학회, 1991.

최광현, 「만화본 춘향가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류준경, 「「만화본 춘향가」 연구」,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문과, 2002.

정이다.³⁾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일찍이 정하영 교수가 제기한 바 있다. 정하영 교수는 무엇보다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의 교섭사라는 맥락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번역의 필요성, 작품 자체의 한문학적 위치와 수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사씨남정기」와의 비교고찰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⁴⁾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 작품을 번역하고⁵⁾, 작품의 특징 및 그 의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서사한시라는 장르적 특성을 심분 고려하고, 18세기의 향촌사대부 작자의 「사씨남정기」 이해와 재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해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향촌사대부의 「사씨남정기」 읽기의 한 모습을 밝히고, 나아가 소설의 한시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 및 한계를 살펴, 「사씨남정기」와 관련된 조선후기 문학사의 한 국면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II.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의 구성적 특징

- 「사씨남정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창작시기와 원텍스트의 성격

柳振漢이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이하 「告祠堂歌」)를 지은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춘향가」를 지은 것이 그의 나이 44세 때인 1755년이니, 아마도 이 무렵에 창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사씨남정기」

3) 이수봉,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試譯」, 『개신어문연구』 6, 충북대학교, 1991.
정하영, 「「사씨남정기」 한역시考」, 『연민학지』 1호, 1993.

4) 정하영, 위의 논문, p.114.

5) 번역문은 본고 뒤에 부기하도록 한다.

는 대략 1690년 전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고, 김춘택이 이를 漢譯한 것이 1709년이니, 대략 「사씨남정기」 창작 뒤 60여년, 김춘택 한역 뒤 40여년 뒤에 만화가 이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화가 읽은 텍스트는 어떤 것일까? 김만중의 원본 계열의 한글 텍스트일까, 아니면 김춘택의 한역 계열 텍스트일까? 이 점에 대해 먼저 고찰해 보자.

현재 남아있는 「사씨남정기」는 대부분 김춘택의 漢譯 계열 작품이다. 한글본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모두 김춘택의 한역 계열 작품을 재번역한 것이다. 현재 전하는 이본들 중 김만중 창작의 원본 계열의 대표적 이본은 연세대도서관 소장 「白蘋洲重逢記」와 장서각 소장 「남정기」이다.⁶⁾ 원본 계열과 김춘택 한역 계열은 김춘택이 한역하면서 남긴 범례에서 밝힌 한역하면서 수정한 실례들을 통해 구분된다. 그런데 이 범례에 나타나는 사항으로 「고사당가」 창작에 참고가 된 텍스트의 성격을 밝히기 어렵다. 한시라는 그 나름의 양식적 특성에 의해 생략되거나 변모되는 부분이 많고, 총 2000자 정도의 길이가 한시로서는 장편이라고 할지라도, 소설 한편 전부를 제대로 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범례에서 밝힌 수정부분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사당가」에 담긴 고유명사를 통해 참조된 텍스트의 성격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고사당가」에서 나오는 고유명사 중 「백빈주중봉기」와 김춘택 한역본과 서로 다른 것은 “묘희”, “백자당”, “동청”, “장진” 등이다⁷⁾. 그런데 「고사당가」에서는 이들이 “妙喜”, “百子堂”, “董靑”, “蔣”⁸⁾ 씨로 표기되고, 이들은 모두 김춘택 한역본과 일치한다. 따라서 만화가 읽은 텍스트는 김춘택 한역본 계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당시

6) 이금희, 『「사씨남정기」연구』, 반도출판사, 1991.

이래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 19, 대동한문학회, 2003.

7) 「백빈주중봉기」에서는 苗姬, 柏子堂, 董淸, 張進으로 표기되고, 김춘택 한역본 계열에서는 妙喜, 百子堂, 董靑, 蔣振으로 표기된다.

8) 「고사당가」에서는 “蔣”이라는 姓만 나온다.

유행한 텍스트와 독자의 구체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화 유진한이 18세기 중반경에 김춘택 한역본 「사씨남정기」를 읽었다는 사실은 서울뿐 아니라 충청도 지방까지 이른 시기에 「사씨남정기」가 확산되었음을 알려주는 구체적 증거이다. 동시에 만화의 독서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통해 이른 시기부터 김만중 원본 계열보다 김춘택 한역본이 널리 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고사당가」의 창작 원천이 김춘택 한역본 「사씨남정기」라는 사실의 확인이 지니는 다른 하나 의미는 「고사당가」 창작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나 한문서사시 연구의 일환으로 「고사당가」가 언급될 때, 국문소설과 한시의 장르 교섭의 맥락에서 언급되었다.¹⁰⁾ 넓은 의미에서 「고사당가」를 ‘국문소설’과 한시의 장르 교섭으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만화가 직접적으로 참고한 텍스트는 한문 텍스트였다. 특히 김춘택이 「사씨남정기」를 漢譯하면서 ‘史家 文體’를 본받았다고 하였으니, 만화가 읽고 이해한 「사씨남정기」 텍스트는 일반적인 ‘국문소설’과 달랐다고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만화의 「춘향가」 창작과 「고사당가」의 창작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없을 듯하다. 비록 紀俗樂府의 전통에서 「춘향가」와 「고사당가」가 한문서사시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면모를 띠지만, 만화가 판소리(계 소설) 「춘향가(전)」를 대하는 태도와 한문본인 「사씨남정기」를 대하는 태도는 그 텍스트의 언어 문자적 차이로 인해

9)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사씨남정기」가 김춘택 한역본 계열으로, 원작 계열의 이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원작 계열의 국문본이 어느 순간까지는 지속적으로 전승되다가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갔는지 혹은 처음부터 전승 범위가 아주 협소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만화가 읽은 「사씨남정기」가 김춘택 한역본 계열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사씨남정기」의 전파는 사대부들에 의한 김춘택 한역본의 유포가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이것의 한글번역본이 여성 및 하층으로 퍼져 나간 것이 아닐까 한다.

10) 박혜숙, 「한국 한문서사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2집, 한국한문학회, 1998, pp.254-255.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¹¹⁾ 후술하겠지만 만화본 「춘향가」에서 춘향에 대한 태도는 상층에 하층에 대한 시혜적인 면모가 두드러지지 만¹²⁾, 「고사당가」에서는 사씨에 대해서는 동일시하는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는 내용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텍스트를 대하는 작자의 태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2.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의 내용적 특징

이제 「고사당가」의 구성과 단락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고사당가」는 「사씨남정기」를 한시화한 것이기에, 「사씨남정기」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용을 중심으로 「고사당가」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序詞 : 사당에서의 告由 장면(1~3구)
- ② 사씨와의 혼인과 유소사의 죽음(4~24구)
- ③ 교씨의 축첩과 모해(25~38구)
- ④ 사씨의 南征(39~59구)
- ⑤ 유연수의 유배(60~66구)
- ⑥ 사면과 귀향 및 설매와의 만남(67~94구)
- ⑦ 사씨 찾기와 회사정 유서 확인(95~108구)
- ⑧ 사씨의 구원과 재회(109~123구)
- ⑨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 상봉(124~130구)
- ⑩ 조상 음덕의 칭송 및 결말(131~140구)

이제 각 단락별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본 작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11) 「춘향가」와 「고사당가」의 주제의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술토록 할 것이다.

12) 류준경, 앞의 논문, pp.272-276.

翰林拜跪夫人泣	한림은 절하고 부인은 슬피 우는데
十年世事渾滄桑	십년 동안 세상일 桑田碧海하였다.
湖山千里去來日	산 넘고 물 건너 천리 길을 돌았고
天地三生離合場	온 세상 三生の 인연 헤어졌다 다시 만났네.
清醕一盃萬端懷	맑은 술 한잔 올리니 여러 가지 생각 떠올라
文不盡言言之長	글로써 다 말할 수 없고, 말하자니 길어진다. (1~3)

작품의 첫 부분으로 序詞에 해당되는 장면이다. “유연수가 사씨를 맞이하여 사당에 告由한다[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씨가 돌아와 유연수와 함께 사당에 고유하는 장면에서 작품이 시작된다. 이 장면을 만화가 서두로 삼은 것은 만화 스스로 「사씨남정기」의 인상적인 장면이 이 부분이고, 동시에 여기서 모든 사건의 실제적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씨가 사당에 고유의 뒤에 임씨의 취첩, 교씨의 징치 등의 내용이 이어지지만, 만화로서는 사씨의 가문으로의 영광스런 복귀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을 실질적인 종결의 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¹³⁾

이와 함께, 만화는 「사씨남정기」의 핵심이 ‘부부의 이별과 만남’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10년 동안 강호를 돌아다니는 고초를 겪다가 다시금 부부가 만나게 된 내용이 이후 서술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만화는 「사씨남정기」를 기본적으로 부부가 겪는 문제를 구현한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곧 만화가 생각한 「사씨남정기」의 핵심은 처첩갈등이나 가부장제의 모순, 혹은 선악 갈등이보다 부부의 문제였던 것이다.¹⁴⁾

13) 「만화본 춘향가」의 서두 역시 작품의 종결시점에서 시작된다. 암행어사 출도 후 춘향과 이도령이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작품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완결의 시점에서 시작하는 序詞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이어 본 내용이 시작하는 면은 두 작품이 동일하다.

14) 지금까지 연구에서 「사씨남정기」의 핵심을 파악하는 시각은 크게 ‘처첩의 문제’, ‘선악의 문제’, ‘부부의 문제’의 세 가지이다. 序詞로 볼 때, 만화는

또 한 가지 序詞에서 주목할 점은 시점의 이동이다. 1구에서는 서술자가 3인칭으로 나타나는데, 3구에 가서 목소리가 유연수로 바뀐다. 이어 4구부터는 철저히 유연수의 목소리로 서사가 진행된다. 첫 부분의 3인칭 서술자는 시인인 晚華로 파악가능하기에, 본 작품은 晚華의 목소리에서 시작하여 곧바로 작품 내적 존재인 유연수로 목소리로 전이된다. 일반적으로 序詞에 이어 본이야기가 시작되는 본사에서 시점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른 독특한 면모라 할 것이다.¹⁵⁾

이상 序詞에 해당되는 시작부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만화가 「사씨남정기」의 실질적 종결지점을 사씨의 복귀 순간으로 파악하고, 또 부분문제를 「사씨남정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序詞에서부터 시인의 시점이 자연스럽게 유연수로 스며들어 서두에서부터 유연수의 시점으로 작품이 서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단락은 유소사가 혼인처를 구하는 과정(4~9), 사씨와의 혼례과정(10~22), 선친의 죽음과 유언(23~24)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중 사씨와의 혼례과정을 읊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씨에게 관음찬을 받는 내용(15~19)과 혼인날의 묘사(20~22)가 주요한 내용이다. 「사씨남정기」와 비교할 때, 이 단락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유소사가 엄승과의 정치적 대결에 부담을 느끼고 致仕한 사실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실 엄승은 「고사당가」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직접 언

‘부부의 문제’를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15) 작품 진행과정에서 시인이 서술자인 유연수로 침투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라는 특성상 서정적 진술이 두드러지는 부분에서는 시인과 1인칭 서술자와의 정서적 일치로 인해 시인이 서술자로 침투하는 것은 서사한시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박혜숙, 「서사한시의 장르적 성격」, 『韓國漢文學研究』 17, 한국한문학회, 1994, pp.318-319. 참조)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 달리 작품 후반부에 서술시점이 시인으로 복귀되지 않는다. 작품 마지막까지 유연수에 의해 서사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도록 할 것이다.

급되지 않는다.¹⁶⁾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와 교씨, 유연수의 삼각관계는 다시 유연수, 엄송, 황제의 삼각관계와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⁷⁾ 하지만 「고사당가」에서는 엄송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사씨, 교씨, 유연수의 삼각구조가 지니는 정치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곧 만화는 사씨, 교씨, 유연수의 관계축과 천자, 엄송, 유연수(유소사) 관계축의 동질성에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 곧 「고사당가」는 부부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뿐, 천자와 충신 및 간신의 類比로 가정의 관계를 그리지는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 여기서 주목할 또 다른 사실은 혼인날에 나누는 유소사와 사씨의 문답이 언급되지 않고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결혼 첫날 유소사와 사씨가 주고받는 문답을 작품이해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하고 있지만¹⁸⁾, 만화는 이 부분에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씨가 쓴 관음찬의 의미도 자신에게 “여색을 경계[戒色荒]”한 것으로 파악한다.¹⁹⁾ 관음찬은 사씨의 삶의 여정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화소로, 여색을 경계하는 의미로 읽어내기는 어려운 데도 본 작품에서는 관음찬에서 여색의 경계를 읽어낸다는 것은 특징적인 면모라 할 것이다.²⁰⁾

-
- 16) 굳이 찾는다면 61구에서 “조정에서 소인 무리를 만났으니[朝廷蓋緣逢群小]”라는 구절에서 “소인 무리”에 엄송이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치적 대립관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17)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작품구조와 인물형상」,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pp.255-261.
- 18) 유소사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대해 순종과 간언으로 남편을 섬기겠음을 언급한 것을 말한다. 남편에게 허물이 있다면 간언한다고 하였지만, 남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를 문답 속에 예비함으로써 이후 서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19) 寒天脩竹畫中人 謝氏前身戒色荒 (제18구)
- 20) 관음찬에 대한 독특한 이해나 유소사와의 문답 생략 등은 만화의 「사씨남정기」 이해 방식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연수의 입장에서 서사가 구성되는 서술시각에 의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유연수의 목소리로

이상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엄승이 그려지지 않아, 유연수, 사씨, 교씨의 관계를 천자와 충신 및 간신의 類比로 읽는 측면이 약화되고, 사씨와 유소사의 문답의 생략되고, 관음찬을 유연수의 색에 대한 경계로 이해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단락은 교씨의 취첩(25~27), 인아와 장주의 출생(28~30), 교씨의 모해(31~38) 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교씨의 취첩과 인아, 장주의 출생 부분은 사씨가 축첩을 권유하는 것과 인아의 출생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장주²¹⁾와 인아의 출생에 대해 작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徒緣自家獲麟遲	자신(사씨를 말함:역자 주)이 기린 얻기 늦은 이유로
要見伊人雛鳳將	이 사람에게 봉황 새끼를 얻게 하였지.
皇天在上感其賢	황천이 그 어짐에 감격하여
角宿祥光凝玉罌	상서로운 동방성의 빛, 옥빛으로 영겨주셨네.
麤身人首一奇瑞	기린 같은 몸, 기이한 머리는 상서로운 징조요
驥母生子能超驥	뛰어난 어미가 낳은 자식이니 능히 뛰어났도다. (28~30)

여기서 작자는 사씨가 麟兒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첩을 들이기를 권한 사씨의 婦德에 감동한 하늘의 도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해되면, 작품에서 교씨의 존재는 방편적인 것이 되고 만다. 사씨의 부덕을 증명하고, 인아의 탄생이 가능하게 한 존재로 교씨가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씨로부터 발생한 제반 문제를 깊이 사고하기 어렵게 된다. 첩의 자리에 있는 교씨 그 자체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

서사가 구성되기에, 유연수의 입장에서 「사씨남정기」를 재전유하여 관음찬에 여색의 경계라는 의미가 덧씌워지고, 사씨가 유소사와 주고받은 문답이 생략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 자체가 작자인 만화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기에 오로지 서술방식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파악할 수는 없다.

21) 시에서는 낳은 자식을 ‘雛鳳’이라고 하여 교씨가 낳은 둘째인 ‘鳳雛’를 연상시키나, 문맥 상 장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

이런 방식으로 교씨를 이해하였기에, 花園에서의 음률 문제로 발생한 교씨와 사씨의 최초의 대립의 의미 역시 만화는 제대로 간취하지 못한다. 「사씨남정기」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사씨와 교씨의 대립이 바로 화원에서의 음률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씨가 인아를 임신하기 전에 일어난다. 사씨의 임신 이전에 둘 사이의 갈등을 설정함으로써, 사씨와 교씨의 갈등이 사씨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본래부터 잠재된 것이 되고, 이후 임신을 매개로 더욱 격화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화는 화원에서의 대립을 인아 출생 이전에 배치하지 않고, 인아 출생 이후에 배치한다.²²⁾ 이러한 사실은 만화가 사씨와 교씨의 갈등의 성격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사당가」에서 교씨 형상은 사씨의 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화될 뿐, 처첩 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담지태로서의 의미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게 된 것이다.²³⁾

이상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교씨의 취첩에서 인아의 출생을 위한 도구적 성격이 부각되는 면모가 나타나고, 화원에서의 음률 사건이 인아 출생 이후에 배치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단락은 사씨의 南征(39~59)을 다룬 부분이다. 먼저 劉門에서 쫓겨난 사씨가 선영 아래에 머물다가(39~41), 시부모의 夢中 계시(42~43)로 두부인을 찾아 長沙로 떠나게 되나(44~49), 두추관의 귀경 소식을 듣고

22) 즐겁고 온화한 기색으로 더욱 투기 아니하고 / 아리따운 꽃 달을 별원에서 함께 즐기려 하였지. // 백자당의 거문고 소리 사람을 그르치기에 / 풍어로 한 말이 참조가 되었구나. // 정녕 人疑인가 맹랑한 말, / 나의 마음 고향하여 모나기를 바라였지. [怡怡和氣益不妬 同樂嬌娥花月廂 琴聲誤人百子堂 諷語繾成讒舌簧 丁寧人疑孟浪說 蠱我中心期以方] (31~33)

23) 서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사당가」는 부부 간의 이별과 재회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교씨가 주요인물로 부각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모순의 담지태인 첩의 문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자살을 기도하다가(50~55), 묘희에게 구원을 받는(56~59)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다루는 이 단락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먼저 주목할 점은 이 단락이 모두 사씨의 시점에서 서술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사씨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토로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呼天痛哭舅姑墓	시부모님 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니
四邊悲風來自楊	사방에 슬픈 바람 백양나무 숲에 불어오누나.
難明至冤質無處	밝히기 어려운 지극한 원한 질정할 곳 없으니
五月陰陰天欲霜	어둑어둑한 오월 하늘에 서리 내리려 하는구나. (40~41)

유씨 문중의 선영에 도착한 사씨가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시부모의 묘 앞에서 스스로 지극한 원한을 질정한 곳이 없다고 통곡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씨의 통곡이나 원한이 「사씨남정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회사정에서 자살을 기도할 때 유일하게 스스로 원한과 울분을 표출할 뿐, 어디에서도 원망이나 울분 등의 감정이 토로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사당가」에서는 이처럼 사씨가 직접적으로 억울한 심정에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의 토로는 이 단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장사로 가는 여정을 노래한 부분이다.

長沙何在去路遠	長沙는 어디인가, 가는 길 아득한데,
風帆搖空波自揚	바람에 돛 흔들리고 물결 절로 이누나.
涪陽極浦莽蒼邊	涪陽의 물가, 아득하고 아스라한 강변에는
落木蕭蕭秋葉黃	쓸쓸히 낙엽지고 가을 잎이 누르도다.
其間朝暮羨何物	그 사이 아침저녁 무엇이 부러웠나?
沙上共宿雙鴛鴦	물가엔 원앙 한 쌍 함께 자고 있었지. (47~49)

실제 「사씨남정기」에서 장사로의 여정에는 임추영의 집 방문과 늙은 하인의 죽음, 그리고 강남 땅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나 사씨의 감정 토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화는 「사씨남정기」와는 달리 장사로의 여정에서 사건의 서술은 배제하고 오로지 사씨의 감정만을 부각하고 있다. 사씨는 쓸쓸한 가을 풍경 속에서 짝을 이룬 원앙새를 바라보며, 유연수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감상적 분위기는 두추관의 귀경 소식을 듣고 “두견새 울음소리가 애끓는 듯하”다거나, 스스로를 “무리 잃고 떠도는 기러기”나 “우리에 갇힌 소”에 비유하는 모습에서도 계속 이어져, 감정의 토로나 정감의 강조가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난다.²⁴⁾

이 단락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은 황릉묘에서 二妃를 만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사씨남정기」에서는 황릉묘에서 이비를 만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대해 지시를 받고, 스스로 지니는 삶에 대한 의문을 푸는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화소는 기능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시이기에 나타나는 축약이라기보다는 작자의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황당무계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초현실적인 요소를 배제한 것이다.²⁵⁾

이상과 같이 이 단락은 사씨의 시점에서 서술되며, 사씨의 내면토로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현실적인 면을 배제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⑤ 단락은 유연수가 행주로 귀양 가고, 풍토병이 걸렸으나 관음의 도움으로 치유되는 내용인데, 다시 유연수 시점으로 서사가 서술된다. 이

24) 남쪽 가는 처음 계획 실로 낭패 되니 / 두견새 울음소리 애끓는 듯하구나.
// 무리 잃고 떠도는 기러기 쓸쓸히 날고 / 우리 갇힌 소처럼 갈 곳이 없구나.
[南征初計實狼狽 子規聲中堪斷腸 翱翔可憐失群雁 進退還同觸藩羊] (51~52)

25) 황릉묘와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말미에서 황릉묘와 관련된 언급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비와의 만남은 언급되지 않고 다만 조상이 계시었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곧 황릉묘의 계시를 조상의 음덕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단락에서 주목되는 점은 귀양에 대한 유연수의 태도이다. 다음을 보자.

朝廷蓋緣逢群小	조정에서 小人 무리들 만났으니
枳棘甘心棲鳳凰	가시나무에 기꺼이 봉황이 깃들겠나.
千秋屈子一盤愁	천년의 굴원과 같은 근심으로
蕙以爲佩蘭爲纒	혜초를 허리에 차고, 난초를 띠에 매었네. (61~62)

여기서 유연수는 스스로를 세상에 용납되지 못한 충신으로 그린다. 「사씨남정기」에서는 담담히 서술되어 있을 뿐인데, 여기서는 스스로를 가시나무에 깃들 수 없는 봉황, 세상에 용납되지 못한 굴원에 비기며, 비장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유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청을 들인 자신의 잘못이지만,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직 자신의 衷情만을 부각하는 하고 있다. 곧 반성적 시선보다는 감정적 울분과 비애가 부각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할 것이다.

⑥ 단락은 유연수가 사면을 받아 무창을 향하다가(67~69), 동청과 교씨의 행차를 보고(70~81) 설매를 만나 사건을 전말을 듣는(82~94) 부분이다. 유연수가 사면을 받고 무창에서 여생을 보내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매우 밝게 그리는 것이 특징적인 면모이다. 정치적인 복귀가 아니라 사면에 의한 돌아감이며, 자신의 고향인 서울이 아니라 무창으로 가는 것은 피난의 의미도 있는데, 유연수는 마치 삭막하고 힘든 정치현실을 떠나 안락한 전원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곧 만화는 유연수의 武昌行을 전원으로의 돌아가는 즐거움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동청과 교씨의 행차를 보는 부분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총11구의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나타난다. 분량의 확대는 대부분 동청과 교씨의 묘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동청에게는 탐관오리적인 면모가 부각되고, 교씨에게는 사치스런 면모가 부각된다. 유연수가 직접 목도하는 것으로 서술되기에 극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청과 교씨의 묘사의 확대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설매를 만나 사건을 전말을 듣는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꽤 많은 분량이다. 앞서 동청과 교씨의 묘사가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연수가 직접 설매에게 전문하는 것으로 그려지기에 교씨의 잔악한 행동을 알고 크게 놀라는 면모를 강조하느라 분량이 확대되었다.

⑦ 단락은 설매에게 말을 들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의 심정 변화와 사씨를 찾는 과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95~108)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유연수는 무엇보다 사씨를 그리워한다. 사씨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지²⁶⁾, 아득하기만 한 사씨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리워하고²⁷⁾, 혹시 달 속의 항아를 따라 갔는가 반문하는²⁸⁾ 모습에서 사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그리움이 부각되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자책과 후회, 그리고 사씨가 고난을 겪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사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미안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 뚜렷이 강조되는 것은 미안함보다는 사씨에 대한 사랑, 그리움이다. 사씨가 회사정에서 자살을 기도하며 쓴 글을 보고, 사씨가 죽은 줄 알고 노래하는 다음 구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高聲大哭水爲咽	큰 소리로 통곡하니 물도 목이 메고,
不覺亭頭身仆僵	모르는 사이 회사정 앞에 몸이 쓰러지도다.
垓城疏雨楚宿虞	垓城에 성긴 비 내릴 때, 우미인이 잠들었고,
馬嵬淒風花落唐	馬嵬에 서늘한 바람 불 때, 당나라의 꽃이 떨어졌지.
淒涼人事妙年鬼	치량해라 인간사, 젊은 나이에 귀신 되니,
如玉貞姿由我蕩	옥처럼 곧은 자태 나 때문에 요절했네. (102~104)

회사정에서 투신한다는 사씨의 글을 보고 유연수는 놀라 쓰러진다. 이어 사씨의 죽음을 초나라의 우미인, 당나라의 양귀비에 비유한다. 그

26) 嗟乎謝婦見何處
 27) 音容杳杳一別後 遠山蒼蒼流水泐
 28) 月裡尙隨孤眠婦

런데 이들 우미인과 양귀비는 요절하였다는 점에서 사씨의 상황과 일치하지만, 그 행실은 사씨와 함께 거론하기 어렵다. 모두 천하의 절색으로 요절한 여인이지만, 德行으로 일컬어지지 않는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사씨의 형상은 婦德을 지키다 순절한 여인보다는 요절한 천하절색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곧 유연수에게 사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요절한 “아름다운 여인”인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면모가 두드러지게 된 이유는 사랑하는 감정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감정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런 여인의 면모가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실제 「사씨남정기」에서 철저하게 부덕을 지닌 도덕적인 면모만 부각되는 것과는 전혀 면모가 나타난 것이다.

⑧ 단락은 동청이 보낸 壯丁에게 유연수가 쫓기다 사씨에 의해 구원 받고(109~115), 서로 재회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총 13구로 확대 되는데, 특히 116~122구까지 사씨와의 재회 장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각되는 것이며, 동시에 序詞에 나타나듯 부부의 만남과 이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이처럼 재회의 순간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⑨ 단락은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작품의 결말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축약되어 나뉘어진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유연수가 북경의 집으로 돌아와 두부인을 만나고, 다시 江西에 포정사로 나가서 군산에 있던 사씨를 맞아들여 사당에 고유하고, 이어 임씨를 첩으로 맞아들여 인아를 만나고, 서울로 돌아와 자손을 낳고 잘 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부인과의 재회, 임씨의 취첩, 인아의 상봉만을 간략히 언급할 뿐, 공간의 이동(서울→강서→서울)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사씨와의 재회 이후 부분은 아주 간략히 처리하고 있다.

⑩ 단락은 조상의 陰德을 칭송하며 작품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棊巖人事十行文 바둑처럼 변화하는 인간사를 열줄 글로 쓰고서
再拜仰告先翁孃 돌아가신 부모님께 절하고서 고하노니,

吾門何幸有今日 우리 집안 얼마나 다행인가, 오늘이 있으니.
 教道無非宜祐彰 가르침 틀린 것 없으니 마땅히 도우심 크도다. (131~132)

이 단락의 첫 부분이다. 이제 다시 고유의 시점으로 돌아와 전체 敘事를 정리한다. 조상께 고유하는 시점으로 돌아왔기에 조상의 음덕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는데, “황릉묘 아래에서 길을 가르치시고 / 백빈주 가에 배 매어 놓게 하셨네.”²⁹⁾라고 하여 황릉묘 사건과 유연수의 구원이 모두 조상의 음덕이라고 하였다. 곧 황릉묘에서의 二妃와 문답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비가 갈 길을 알린 것을 조상의 가르침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비현실적인 사건은 가능한 한 축소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조상의 음덕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면모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어 동청과 교씨의 죽음, 그리고 묘회에 대한 고마움을 간략히 언급하고서 다음과 같이 작품을 마무리한다.

袞裳欲繡此顛末 袞裳에 이 전말 수놓고서
 留與師尼藏佛箱 스님께 드려 불상(佛箱)에 남겨 두고 싶어라.
 從今但願不相離 이제부터 다만 바라는 것은 서로 헤어지지 않고
 宜室宜人壽且康 아내로 남편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뿐. (139~140)

이 부분은 서사한시가 보이는 일반적인 結詞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유연수와 사씨의 만남과 헤어짐을 기록으로 남기고, 길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결사와 서술자의 시점이 다른 면모를 보인다. 대부분 이러한 결사는 다시 작자의 시점으로 돌아와 액자 내부의 敘事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작중인물인 유연수의 시점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곧 유연수가 자신이 겪은 일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곧 일반적인 서사한시 작품과 달리 유연수의 시점에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점이 결말부분의 특징적인 면모라 할 것이다.

29) 黃陵廟下爲指路 白蘋洲邊催繫航 (133)

이상, 「고사당가」의 각 단락별의 특징적인 면모를 「사씨남정기」와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대부분 유연수의 시점에서 작품이 구성되는데, 사씨의 남정 부분만은 사씨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전체 서사에서 유연수와 사씨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이 주요하게 처리되어 또 다른 주인공인 교씨가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서 유연수와 사씨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토로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부각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작품이 사당에서의 고유에서 시작되어, 「사씨남정기」에 나타나는 고유 이후의 사건은 간략하게 서술되는 면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이상의 여러 특징들의 의미에 대해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사씨남정기」 한시화의 의미

「고사당가」는 「사씨남정기」를 한시로 읊은 서사한시 작품이다. 이제 앞서 분석한 작품의 특징적인 면과 서사한시의 양식적 특성을 아울러 고려하여, 「사씨남정기」를 한시화한 「고사당가」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서사한시의 주요한 특징은 그 序詞의 구성 방식에서 나타난다. 서사한시의 선구적 작품이라고 할 「孔雀東南飛」에서부터 서사한시 작품들은 그 나름의 독특한 도입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 방식의 일반적인 구성은 이후 진행되는 서사에 대한 호기심을 환기하거나 전체적인 개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³⁰⁾ 「고사당가」의 경우, 전체적인 개략이 드러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건이 모든 끝난 결말의 시점(사당에

30) 우리 서사한시의 序詞[도입부] 구성 방식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정길수, 「『道康警家婦詞』의 형식과 목소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pp.311-317. 참조.

고유하는 시점)에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서사의 구성은 서사한시의 일반적인 형태로, 만화는 「춘향가」의 창작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고사당가」는 여타의 서사한시와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序詞가 제시된 다음 本詞에서 본격적인 敍事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시인 자신이 서술자가 되어 사건을 서술하거나 혹은 액자의 형태로 등장인물이 사건을 서술하게 된다. 그런데 「고사당가」는 등장인물이 사건을 서술하는, 액자적 방식을 취하지만 일반적인 액자구조와는 다르다. 앞서 단락별 특징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언급했듯이, 3인칭의 시인인 서술자가 本詞가 아닌 序詞에서 작중인물인 유연수로 전이되는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는 작품의 결말부분에까지 시인인 서술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채, 유연수의 목소리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작품 말미에서 시간은 다시 序詞가 시작된 고유의 시간으로 돌아왔으나, 최초에 고유의 순간을 서술하던 3인칭 서술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은 채 완결되는 불완전한 액자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작중인물과 작자와의 거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작품 서두에서 전체서사에 대한 개략적 제시에서부터 작중인물인 유연수는 시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리고 작품 결말 부분에서도 유연수는 일반적으로 작자인 시인이 발언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과 전승의 욕망을 드러낸다. 곧 작중인물인 유연수가 일반적인 서사한시의 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유연수와 작자와의 거리가 거의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유연수가 바로 만화의 분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서사한시의 구성과 달리 서두 부분과 결말 부분에까지 작중인물과 시인이 거의 동일화된 것은 소설읽기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거나 들은 현실의 사건이라면 거리를 확보하여, 본사에 해당되는 주요 敍事부분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한 시인 자신의 생각을 서두와 결말 부분에 투영해야 하겠지만, 소설독서의 경우 허구라는 점에서 觀風의 맥락이 작용할 여지가 비교적 적고, 게다가 만화가 「사씨남정기」

독서 과정에 폭 빠져 작중인물인 유연수와 거의 동일시되었기에 이런 동일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³¹⁾

이처럼 시인이 작중인물인 유연수와 동일화함으로써 「고사당가」의 敘事는 「사씨남정기」와 조금 다르게 구성된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사당가」에서는 엄승이 나타나지 않는다. 곧 사씨와 교씨를 유소사(유연수)와 엄승의 관계축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씨도 「사씨남정기」에서만 핵심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지는 않는다. 교씨는 엄승과 類比되는 존재로 그려지지도, 모든 악행의 원인으로 부각되지도 않은 것이다. 반면, 「사씨남정기」와 달리 「고사당가」에서 부각되는 것은 유연수의 감정이다. 유연수의 내면의 감정 토로가 부각되어 나타난다.³²⁾ 하지만 그 감정은 악한 교씨 및 동청에 대한 분노나 세상에 대한 원망 등이 중심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유연수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부각되지도 않았다.³³⁾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씨에 대한 그리

31) 「만화본 춘향가」에서도 이도령의 입장에서 서사가 구성되고, 만화가 이도령에게 스며드는 모습이 보이지만, 「고사당가」와 달리 「만화본 춘향가」는 액자구조를 갖추어 시인인 서술자가 액자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고사당가」의 불완전한 액자구조는 만화가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서·창작 과정에서 나타난 등장인물과의 동일화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한문본 「사씨남정기」’와 ‘판소리 춘향가’라는 원텍스트의 차이 때문인 것이기도 하다. 판소리 「춘향가」의 경우 하층문화로 대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였다면, 한문본 「사씨남정기」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로, 자기 계층의 문화로 이해하고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32) 물론 이는 시라는 장르 속성에 의해서 나타난 면모이기도 하다. 만화 유진한의 「사씨남정기」 읽기와 그 읽기를 바탕으로 한시화 되는 과정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33) 이 점은 경주의 향촌 사족인 이양오의 「사씨남정기」 독법과 다른 면을 보인다. 이양오의 「사씨남정기」의 비평인 「謝氏南征記後序」를 보면, 이양오 역시 「사씨남정기」를 유연수 중심으로 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양오는 유연수의 삶에서 ‘개과천선’을 읽어낸다. 곧 유연수의 삶의 양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고쳐나가는 모습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같은 향촌 사족인 만화는 유연수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껴안고, 동일시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 점에서 사

움, 사랑이었다. 유연수가 그려내는 사씨의 형상은 「사씨남정기」에서 나타나는 이념의 화신이 아니라 바르고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에 대한 유연수의 사랑이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특징적인 면은 사씨의 南征 부분이 사씨의 목소리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앞부분까지는 유연수가 서술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씨가 서술자가 되어 敍事를 구성한다. 사씨의 남정은 유연수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유연수가 서술자로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씨가 서술자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춘향가」의 경우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춘향전」을 이도령의 시점에서 서사화할 때, 이도령이 서울로 올라간 뒤에 춘향이 겪은 일은 이도령이 서술자로 직접 서술할 수 없다. 그런데 만화는 그의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는 자리에서 춘향의 입으로 그간의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등장인물인 춘향의 직접적 발화를 통해 서사를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만화는 「고사당가」에서 이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사씨와의 재회 뒤에 사씨의 입을 통해서 사씨가 겪었던 일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사씨가 스스로 서술자로 서사를 서술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작중인물의 직접적 발화의 방식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자신만의 깊은 내면이 토로될 수 있었다. 사씨는 여기서 사건의 서술보다는 사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한다. 특히 長沙로 가는 배에서 다정한 원앙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씨의 서술에는 유연수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면모, 곧 남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여인의 모습은 「사씨남정기」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이념적인 존재로 도덕적 이념의 토로와 관계된 감정이 아닌, 여인으로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사씨남정기」에서는 결코 형상화되지 않은 것이다.

대부의 또 다른 「사씨남정기」 독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양오, 「사씨남정기 후서」,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p.107.)

이처럼 「고사당가」에서 부부간의 이별과 만남,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두드러지게 되자, 「고사당가」는 「사씨남정기」와는 다른 주제의식을 구현하게 된다. 이제 부부의 헤어짐과 만남, 고난 속에도 꺾이지 않는 사씨의 절개와 그에 대한 유연수의 사랑,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씨의 사랑 등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게 된다. 물론 유연수의 경우, 아내를 내친 인물이기도 하기에 일관되게 사랑의 감정이 작품에 드러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서사가 유연수의 시점에서 기술되고, 자신의 잘못을 부각하기보다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부각하기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바탕에 깔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사씨남정기」에서 주요하게 그려지지 않았던 부부간의 사랑이 「고사당가」에서는 부각된다. 특히 「고사당가」의 사씨는 「사씨남정기」에서 나타나는 ‘이념의 수호자/실천자’의 모습과 달리 슬픔과 그리움을 토로하는 생동감 있는, 보다 현실감있는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사씨남정기」와 다르게 만화의 「고사당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이다. 처첩갈등이나, 가부장제 속에서 가부장의 이념을 실현하는 존재의 면모, 축첩제의 모순 등이 중심인 것이 아니라, 헤어짐과 만남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부부 간의 사랑과 그리움이 핵심이 되는 새로운 면모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사당가」 역시 「사씨남정기」이다. 「사씨남정기」의 한 독법이자, 「사씨남정기」의 한 변주인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만화가 「사씨남정기」의 한 독자로서 나름의 방식으로 「사씨남정기」를 이해하고, 나아가 서사한시라는 장르를 통해 그것을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형상과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그것은 만화에 의한 「사씨남정기」 읽기이자, 동시에 서사한시 양식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사씨남정기」이다. 이 새로운 「사씨남정기」에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신의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특히 사씨의 인물형상이 보다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 이 점이 바로 「고사당가」가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가 된다. 사대부가 부부의 이별

과 만남, 그 속의 고난,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나는 서로의 사랑을 중심으로 「사씨남정기」를 재해석하고, 재전유하는 모습이 「고사당가」에 구현된 새로운 「사씨남정기」인 것이다. 동시에 이는 18세기 중반 「사씨남정기」의 한 향유 양상이자, 소설의 한시화라는 갈래의 변모로 새롭게 나타난 「사씨남정기」인 것이다.³⁴⁾

IV. 나가며

지금까지 만화의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먼저 「유한림영사부인고사당가」의 창작시기와 창작의 원천이 된 「사씨남정기」의 텍스트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작품은 대략 18세기 중반 경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며, 창작에 참조된 「사씨남정기」 원-텍스트는 김만중이 창작한 국문본 계열이 아닌, 김춘택이 한문으로 번역한 「사씨남정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한문본을 읽고 쓴 작품이기에 판소리 「춘향가」를 듣고 쓴 「만화본 춘향가」와는 기본적인 성격이나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추정하고, 이어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유한림영사부인고사당가」의 서사적 특징에 대해 「사씨남정기」와의 서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사씨의 남정 부분만 사씨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나머지는 모두 유연수의 시점에서 서사가 구성되는 특

34) 물론 만화의 이러한 「사씨남정기」 읽기 및 새로운 변주가 「사씨남정기」 작품이 지니는 본래의 문제의식을 얼마나 제대로 읽어내고, 의미를 부여하였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사실, 「고사당가」는 한시라는 특성상, 여전히 소설의 풍부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보조인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교씨로 드러나는 축첩제의 모순, 유연수, 교씨, 사씨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의 모순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시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사문학의 한시화의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별도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이 있었다. 그리고 「사씨남정기」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교씨의 문제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주로 유연수와 사씨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주요하게 처리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서 유연수와 사씨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직접적으로 토로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면모에 따라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는 「사씨남정기」와는 구별되는 주제의식을 구현하게 되었다. 가부장제의 모순이나 축첩제의 현실 등이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사씨와 유연수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사랑이 부각되었다. 부부가 겪은 여러 고난과 그 속에 피어나는 서로간의 사랑의 감정이 작품의 주지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인공 사씨의 형상은 「사씨남정기」에 나타나는 이념적 인물이 아니라, 보다 생동감 있는 인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18세기 향촌사대부의 「사씨남정기」 읽기의 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서사한시 창작을 통해 새로운 「사씨남정기」를 구현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화의 이러한 창작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천착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만화가 남긴 시문들에서 만화만의 독특한 면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대부들에 의한 「사씨남정기」 향유의 특징 및 서사문학을 서사한시화하는 다양한 양상의 특징에 대한 연구에 본연구가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 一百四十句 押陽韻

- 「劉翰林이 謝夫人을 맞아 祠堂에 아뢰다」

翰林拜跪夫人泣 十年世事渾滄桑 湖山千里去來日 天地三生離合場 清醕一盃萬端懷 文不盡言之長 先君在時愛小子 廣求人間貞淑娘 將成義帝鹿皮禮 每誦周后關雎章 紛紛媒妁日來往 宋是何人齊則姜 承先啓後納婦心 賢否之間興與亡 人誰當世拔萃姿 吾亦其時如玉郎 非無貴門信使來 不許諸家華燭張 夭桃信息聽朱婆 報道新城春獨芳 家門給事最清閭 姿色天人絕美粧 尋常女工不盡方 剩說閨中書在床 媒言甚合父母意 其德如何猶未詳 家君之妹杜氏家	한림은 절하고 부인은 슬피 우는데 십년 동안 세상일 상전벽해 하였도다. 산 넘고 물 건너 천리 길을 돌았고, 온 세상 삼생의 인연 헤어졌다 다시 만났네. 맑은 술 한잔 올리니 여러 가지 생각 떠올라, 글로써 다 말할 수 없고, 말하자니 길어진다. 선군께서 어린 아들 사랑하시어 세상의 정숙한 여인 두루 구하셨다네. 장차 폐백 보낼 혼인처를 구하시면서 항상 太姒와 太妃의 덕을 말씀하셨지. 어지러이 매파들 날마다 오가는데 宋에서는 何氏요, 齊에서는 姜氏라 하네. 앞 다투어 여러 여자 소개하는데 어질다고 올리고, 그르다고 낮출 뿐이네. 사람들은 가장 자태가 빼어난 사람 누구라 하나? 나 역시도 지금의 옥랑이로다. 貴門마다 사람들 보내었지만, 어느 집과도 화촉 올리기 허락하지 않았지. 아리따운 아가씨 있다 朱婆에게 소식 들으니, 新城 봄날만이 유독 아름답다 하도다. “給事 나온 가문은 가장 맑은 집안이요 天人 같은 자색은 진실로 아름다워요. 여공에 부족한 것 없는 것은 당연하구요 규방 책상에 서책 가득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매파의 말 진실로 부모의 뜻에 맞으나 그 덕이 어떤지는 자세히 알 수 없도다. 아버지의 누이인 두씨 부인이
--	---

日有翩翩青鳥翔	날아가 볼 파랑새 있다고 하여,
花庵白 ¹⁾ 衲一女僧	뛰어난 능력 갖춘 花庵의 여승이
妙理深深携鉢囊	바라 들고 갔도다.
觀音畫像錦繡語	관음화상에 비단 같은 말 써 넣으니
帶來娘娘華墨光	관음을 끼고서 화목이 빛나도다.
文才孟光一頭讓	글 솜씨는 孟光이 한 자리 사양할 듯하고
筆力班昭餘債償	필력은 班昭의 옛날 빚 갚는 듯하도다.
寒天脩竹畫中人	찬 하늘, 곧은 대나무 그림 속 사람,
謝氏前身戒色荒	사씨의 전신으로 여색을 경계하였지.
如來贊文作蹇脩	여래의 찬문이 蹇修가 되니
不必他求媒是良	다른 곳에서 구할 필요 없이 이것이 좋은 중매이로다.
親迎旭朝迨其吉	아침 햇살 가득한 친영의 좋은 날이 되니
春滿標梅三實筐	봄빛 가득 매화 열매 광주리에 차도다.
于歸之日九族賀	혼인날에 모인 모든 친족이 축하하면서
咸曰新人出凡常	신부가 비범하다 모두 말하네.
言談莫非女子行	말하는 것 모두다 여자 행실 아닌 것 없었고
舉止無違夫婦綱	행동거지 조금도 부부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지.
先親末音訓子語	선친께서 마지막으로 아들 훈계하시길,
瞑目吾行歸北邙	“눈 감고 이제 북망산천 가노니,
家間事事聽汝婦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 말 따르고,
無或生愆須自匡	혹시라도 허물없게 바르도록 하여라.”
花床春夢問幾夜	꽃 같은 침상에서 봄꿈 꾸는 것, 몇 밤이었나?
晚晚熊羆占吉祥 ²⁾	잠지하신 아들이 늦어만 갔네.
周南 ³⁾ 樛木詠葛藟	詩經에서 나뭇가지에 칙덩굴 얽힌 것 노래하듯이

- 1) 白 : ‘百’의 오기.
- 2) 熊羆占吉祥 : 『시경』, 「斯干」에, “대인이 짐을 치니, 곰 꿈은 남자를 낳을 상서이고, 뱀 꿈은 여자를 낳을 상서이다.[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 維虺維蛇 女子之祥]”라 하였다.
- 3) 周南樛木詠葛藟 : 『시경』, 「周南·樛木」에서 “아래로 늘어진 남산의 나뭇가지, 칙덩굴이 의지하고 얽혀 있구나.[南有樛木 葛藟纍之]”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뭇가지는 문왕(文王)의 후비를 가리키고, 칙덩굴은 후궁들을 가리킨다. 후비가 투기하지 않고 미천한 후궁들에게 두루 은혜를 베풀자, 후궁들이 그 덕에 감복하여 이렇게 노래했다고 한다.

勸我申申迎別房
 招來彩鸞與同棲
 化作妖狐知未嘗
 徒緣自家獲麟遲
 要見伊人雛鳳將
 皇天在上感其賢
 角宿祥光凝玉罍
 隳身人首一奇瑞
 驥母生子能超驤
 怡怡和氣益不妬
 同樂嬌娥花月廂
 琴聲誤人百子堂
 諷語翻成讒舌簧
 丁寧人處孟浪說
 蠱我中心期以方
 無常魘詛亦然疑
 不識宵人踰短牆
 佳人掌上失珠痛
 淚濕欄頭紅血襠
 朝譏暮訐轉沈溺
 雲雨陽臺未楚襄
 依微霧中臘雪梅
 爲誰花園浮暗香
 東昌客店玉不言
 無罪貞娘遂下堂
 靡蕪春色滿前路
 路出楸原低夕陽
 呼天痛哭舅姑墓
 四邊悲風來自楊
 難明至冤質無處
 五月陰陰天欲霜
 分明嘉訓七年厄

나에게 거듭거듭 別房 맞이하라네.
 彩鸞을 맞아들여 함께 머무는데
 妖狐로 변모할지 조금도 몰랐도다.
 자신이 麒麟 얻기 늦은 이유로
 이 사람에게 봉황 새끼를 얻게 하였지.
 皇天이 그 어짐에 감격하여
 상서로운 동방성 빛, 옥빛으로 영겨주셨네.
 기린 같은 몸, 기이한 머리는 상서로운 징조요
 뛰어난 어미가 낳은 자식이니 능히 뛰어났도다.
 즐겁고 온화한 기색으로 더욱 투기 아니하고
 아리따운 꽃 달을 별원에서 함께 즐기려 하였지.
 백자당의 거문고 소리 사람을 그르치기에
 諷語로 한 말이 참조가 되었구나.
 정녕 人處인가 맹랑한 말,
 나의 마음 고흫하여 모나기를 바라였지.
 떳떳하지 못한 저주의 말 또한 의심케 하고,
 밤늦게 담장 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네.
 아름다운 사람 손 위의 진주를 잃어 가슴 아프니
 난간 머리에 눈물 젖고 강보에 붉은 피 맺혔다.
 아침저녁으로 참조와 아침에 점점 젖어드니
 陽臺 雲雨之夢의 楚襄王이 아니도다.
 흐릿한 안개 속의 臘梅와 雪梅는
 누구 위해 화원에 暗香을 피웠다.
 東昌 객점의 玉은 말이 없으니,
 무죄한 정숙한 여인 마침내 내쳐졌도다.
 푸릇푸릇 봄빛은 앞길에 가득한데
 묘소 향한 길로 나지막하게 석양지누나.
 시부모덤 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니
 사망에 슬픈 바람 백양나무 숲에 불어오누나.
 밝히기 어려운 지극한 원한 질정할 곳 없으니
 어둑어둑한 오월 하늘에 서리 내리려 하는구나.
 아름다운 가르침에 칠년 고난 분명하고

夢裏拜見先姑嫜
煙雲竹樹五千程
謂汝行行南渡湘
荒山避賊向江浦
渡頭無船誰涉印
丫鬢掩面老奴啼
水闊天長雲杳茫
飄飄一葉暮江頭
幸遇張三歸販薑
長沙何在去路遠
風帆搖空波自揚
涇陽極浦⁴⁾莽蒼邊
落木蕭蕭秋葉黃
其間朝暮羨何物
沙上共宿雙鴛鴦
推官消息聽隣船
杜母前宵朝玉皇
南征初計實狼狽
子規聲中堪斷腸
翱翔可憐失群雁
進退還同觸藩羊
斜陽歸路下船坐
況又盤纏時絕糧
慙慙三夜有情飯
難再秋英廚下鑪
香心欲作水中鬼
千古悠悠魚腹藏
何來錫杖苦止之
指点群⁵⁾山雲外岡

꿈속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이르시기를,
“구름 드리운 대나무 숲 오천리 길을
너는 가고 가서 남쪽의 湘水를 건너가거라.”
거친 산에 도적 피해 강 포구를 향하는데
강나루엔 배 없으니 누가 건너 주리오.
丫鬢은 얼굴 묻고, 늙은 노비는 울부짖는데
드넓은 물, 높은 하늘, 구름 아득하도다.
저녁 강 머리 표표히 오는 작은 배
다행히 생강 팔러가는 장삼을 만났도다.
長沙는 어디인가, 가는 길 아득한데,
바람에 돛 흔들리고 물결 절로 이누나.
涇陽의 물가, 아득하고 아스라한 강변에는
쓸쓸히 낙엽지고 가을 잎이 누르도다.
그 사이 아침저녁 무엇이 부러웠나?
물가엔 원앙 한 쌍이 함께 자고 있었지.
옆의 배에서 推官 소식 들으니,
선정 벼판 관리로 지난 밤 서울로 떠났다 하네.
남쪽 가는 처음 계획 실로 낭패 되니,
두견새 울음소리에 애끊는 듯하구나.
무리 잃고 떠도는 기러기 쓸쓸히 날고,
우리에 갇힌 소처럼 갈 곳이 없구나.
비긴 해 돌아가는 길, 배에서 내려 앉았는데,
노자까지 없어 끼니를 잊지 못하네.
늦은 밤 은근히 정성 짓든 음식 주며,
부엌에서 음식 하던 추영은 다시 보기 어려우리.
꽃다운 마음, 물속 귀신 되어서,
친고 동안 유유히 고기 배에 잠기리라.
어디서 온 스님인가 괴롭게 만류하고
구름너머 君山을 손으로 가리키네.

4) 涇陽極浦 : 『楚辭』, 「九歌」에서 “잠양물가 저 끝을 멀리 바라보며[望涇陽兮極浦]”라 하였다.

5) 群 : ‘君’의 오기.

三聲棹歌使登船	벧노래 부르며 배에 오르게 하니
一瞬之間行李忙	순식간에 떠나는 길 바빠지도다.
幽深瀟灑水月庵	그윽하고 깨끗해라, 수월암이여,
菩薩丹青花雨障	보살 모신 전각 단청에 꽃비가 내린다.
淋漓贊筆手跡留	보살 기린 글이 뚜렷이 남아 있으니
記憶當年雙涕滂	그 때를 기억하니 두 눈에 눈물 가득하도다.
于時而我謫幸 ⁶⁾	이 무렵 나는 행주로 귀양 가게 되었는데,
詩案構人多悚惶	책상 위의 시로 사람을 엮으니 놀랍고 두렵도다.
朝廷蓋緣逢群小	조정에서 소인 무리를 만났으니
枳棘甘心棲鳳凰	가시나무에 기꺼이 봉황이 깃들겠나.
千秋屈子一盤愁	천년의 屈原과 같은 근심으로
蕙以爲佩蘭爲纒	혜초를 허리에 차고, 난초를 띠에 매었네.
蠻鄉瘴氣不勝苦	남만의 풍토는 이기기 어려워
一病將深身名喪	병환이 심해져서 목숨 잃게 되었도다.
黃蘆苦竹掩門臥	누런 갈대 참대 속에 문 닫고 누웠으니
火雲垂簷風不涼	뜨거운 구름이 처마에 드리워 바람조차 시원하지 않도다.
疑神疑鬼夢裏事	신녀인가 귀신인가 꿈속의 일,
白衣瓶中甘露漿	白衣 입은 사람이 병 속에 감로수 담아오네.
靈泉湧出小庭中	신령스런 샘이 작은 뜰에 솟아나
瘴病全蘇骨與盲 ⁷⁾	뼈 속까지 스민 풍토병 완전히 나왔도다.
金鷄 ⁸⁾ 時又放赦回	때 마침 金鷄 꾸며 내린 사면이 돌아와
終老吾將歸武昌	여생을 보내리라 武昌으로 향하였네.
山青萬古赤壁景	만고에 푸른 산은 赤壁의 경치,
海闊三秋張翰 ⁹⁾ 檣	가을날 넓은 바다로 張翰처럼 배 저어 가도다.

6) 荔 : ‘州’의 오기.

7) 盲 : ‘育’의 오기.

8) 金鷄 : 금계는 황금으로 머리를 꾸민 닭이란 뜻인데 사면을 의미한다. 하늘에 있는 金鷄星이 움직이면 죄수를 사면한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唐書百官志』에 “죄수를 사면하는 날 금계를 꾸며 남쪽에 거는데, 7척쯤 되는 대나무에 황금으로 머리를 꾸민 4척쯤 되는 닭을 매단다”고 하였다.

9) 張翰 : 장한은 東晉 때 吳郡 사람으로 洛陽에서 大司馬東曹掾으로 있다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인 오군의 순채국[蓴羹]과 농어회[鱸膾]가 생각나서 “인생이란 가난하게 살아도 뜻에 맞는 것이 좋지, 어찌 벼슬을 하기 위

羹鱸菜蓴萬年計
別業吳中尋舊庄
蒸雲熱風下馬憩
綠水清陰當路傍
揚揚一官自何來
辟易行人走未遑
青旗朱杖左右列
繡轂銀鞍奢侈裝
青驄背上董青坐
願掛中天氣昂昂
千蚯¹⁰⁾鼻息轉日勢
得意青雲誇顯揚
便便大腹似漢卓
食肉年來兼飴¹¹⁾梁
香風浮動五馬後
七寶車中紅錦囊
飛塵暗天擁護地
數千紅粧列成行
輕盈越國翡翠錦
窈窕藍田明月璫
從行行色尚如此
也知其中尤熒煌
華幘半掩辟人去
路傍觀者皆趨踰
安知喬女乃若是
但聞行軒珠佩鏘
前程酒爐我馬頭

농어회, 순채국이 만년의 계책이니
吳中の 옛 전장을 찾아가노라.
더운 구름, 뜨거운 바람으로 말에 내려 쉬노라,
푸른 물, 맑은 그늘 찾아 길가에 머물렀다.
의기양양한 관원 어디서 오는가?
물렀거라 소리하니 지나는 사람 달아날 겨를도 없네.
푸른 기, 붉은 장대는 좌우에 벌려 있고
수놓은 수레, 은빛 안장 사치스럽게 장식하였네.
푸른 말 위에 동청이 앉았는데
중천까지 턱 괴고서 기세가 등등하다.
무지개까지 닿을 듯한 코고는 소리에 더욱 기세등등하여
뜻대로 벼슬 얻어 顯揚했다 자랑하네.
편안하게 큰 배는 한나라 때 동탁이니
몇 해 동안 고기에다 기름진 음식만 먹었다오.
다섯 줄 말 뒤로 향기로운 바람 떠다니니,
붉은 비단 드리운 七寶 수레 있도다.
이는 먼지로 하늘을 가리듯 둘러싸고 가는데,
수천의 붉은 치장 행렬을 이뤘도다.
월나라 비취 비단 입은 가벼운 발걸음이요,
藍田의 명월 귀고리 단 아리따운 모습이라.
따르는 행색이 오히려 이 같으니
그 가운데는 더욱더 화려할 것 알겠도다.
화려한 휘장 반쯤가리고 물렀거라며 가노니,
길가에 보는 사람 모두들 쫓아가네.
어찌 알았겠나, 교녀가 이 같을 줄,
다만 고관의 內行的 쾌옥소리로만 들었다네.
가는 길 주막의 말머리에서

해 고향을 떠나 수천 리 밖에 몸을 얹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는 수레
를 명하여 고향으로 곧장 돌아갔다. 강동(江東)은 곧 오군을 가리킨 말이다.
『晉書·張翰傳』

10) 蚯 : ‘虹’의 오기
11) 梁 : ‘梁’의 오기.

有一女娘遙相望
吾家小園雪中梅
此地如何立彷徨
逢場狀若負罪人
顛倒初筵太慌惘
家中安否問答地
吐盡胸懷淚盈眶
青天雲捲謝氏冤
往事昭昭人不滅
無雙凶賊莫測變
禍機當年嗟未防
誰知琴曲拂墻花
反作春田害苗稂
無瑕玉環不忍事
倫¹²⁾與東洲人姓蔣
凶謀甚至殺愛子
掌珠元非人所戕
千般凶計萬死罪
其毒如虺其性狼
滄沱水上鳥覆否
語到麟兒心若傷
無知有知死生間
在耳如聞其泣嗶
渠雖賤妾是何忍
禽獸之行鶉鵲¹³⁾
嗟乎謝婦見何處
自責吾昏痴更狂
音容杳杳一別後
遠山蒼蒼流水泱

어떤 여인이 멀리서 바라보는데,
우리 집 뜰에 있던 雪梅가
이곳에서 어찌하여 방황하며 서있나.
만나는 모습이 죄지은 사람 같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니 더욱 당황스럽다.
집안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가운데,
가슴속 사연 모두 토해내니 눈에 눈물 고인다.
푸른 하늘 구름 걷힌 사씨의 원한,
지난 일은 다른 이의 잘못 분명하도다.
짜 없는 흉적의 막측한 변고,
재앙의 기미를 그때 바로 막지 못하였구나.
누가 알았으리오? 담장 꽃 떨치던 거문고 곡조,
도리어 봄밭에 이삭을 잘라낼 줄을.
허물없는 옥환의 차마 할 수 없는 일,
동주 사람 장씨와 도모하였네.
흉악한 모의로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으니,
장주는 본디 다른 사람에게 죽은 게 아니었도다.
온갖 흉계 꾸며 만 번 죽어 마땅한 죄,
악독하기는 독사 같고, 본성은 승냥이 같도다.
滄沱河 위태로운 곳, 새의 날개로 덮어주지 못하였으니,
말이麟兒에 이르니 마음이 찢어지도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울음소리는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제 아무리 賤妾이나 차마 이를 어찌 하였나?
짐승 같은 행동에 음란하기까지 하였네.
아아! 사씨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미친 듯한 어리석음을 자책하였네.
이별 뒤에 목소리와 모습은 아득하기만 하고,
먼 산은 아스라하고 흐르는 물은 넘실거린다.

12) 倫 : '論'의 오기.

13) 鶉鵲 : 『시경』, 「鶉奔」의 “鶉之奔奔, 鶉之疆疆”에서 따온 것이다. 「鶉奔」
편은 제선강과 공자완의 음란함을 풍자한 것이라 하였다.

蒼茫生死問無人
 廣西茶船歸楚商
 云云是處早經過
 素衣何處去徜徉
 懷中應抱列女傳
 月裡倘隨孤眠婦
 懷沙亭上獨徘徊
 焚玉深憂胸火揚
 回瞻柱面大書字
 所懷伊人水中央
 高聲大哭水爲咽
 不覺亭頭身仆僵
 垓城疏雨楚宿虞
 馬嵬淒風花落唐
 淒涼人事少年鬼
 如玉貞姿由我蕩
 皇英餘淚泣血痕
 惟有斑斑江岸篁
 如令玉人更起來
 月圓無虧花發萼
 荒詞薄奠泄衷心
 傾我囊中錢一緡
 賒來暮市橘柑果
 料理江村椒荔觴
 多情誄文寫未了
 門外喊聲奇遇當
 傾巢覆卵尚不足
 又送凶徒携劍槍
 蒼黃走避竄伏地
 江水當前愁望洋
 昭關才出子胥囊
 楚江猶遲漁父鯨

아득하여 생사를 물어볼 사람 없는데
 광서로 차 장사 가는 배 초명에 들렀다가,
 일찍이 이곳을 지났는데
 흰 옷 입은 이가 방황하며 어디론가 갔다고 하네.
 분명 품속에 『烈女傳』을 품고 있었겠지,
 혹시 달 속에 외로이 잠자는 姮娥를 따라갔나?
 懷沙亭 가에서 홀로 배회하면서
 옥이 탔을까 하는 걱정에 가슴이 타누나.
 기둥에 쓴 글씨를 돌아보니,
 그리운 이 사람, 물 가운데 뛰어들었구나!
 큰 소리로 통곡하니 물도 목이 메고,
 모르는 사이 회사정 앞에 몸이 쓰러지도다.
 垓城에 성긴 비 내릴 때, 우미인이 잠들었고,
 馬嵬에 서늘한 바람 불 때, 당나라의 꽃이 떨어졌지.
 처량해라 인간사, 젊은 나이에 귀신 되니,
 옥처럼 곧은 자태 나 때문에 요절했네.
 娥黃, 女英의 남은 눈물, 피눈물 자국 남겼으니
 강 언덕 대 나무에 얼룩으로 남았도다.
 옥 같은 이 다시 일어나 오게 한다면
 둥근 달은 어그러짐 없고, 꽃도 만발하리라.
 거친 글에 하찮은 제물로나마 깊은 속내 보이려고
 전대를 기우려 푼돈이나마 마련했네.
 저녁 시장에 가 제수 과일 사오게 하고
 강마을에서 담근 술을 준비하였네.
 정 담긴 제문을 다 쓰기도 전에
 문 밖에 함성소리 나며, 이상한 일 당하였네.
 등지를 기우려 알을 얹은 것도 부족해
 또 창검을 든 흉악한 무리를 보내었도다.
 황급히 달아나다 땅에 엎드려 숨고서
 앞에 있는 강 물결만 근심스레 바라보누나.
 伍子胥는 소관에서 자루에 실려 달아났는데
 楚江의 고깃배는 오히려 더디도다.

身無羽翼不能飛
命如殘鷄臨火湯
蕢歌一聲活人佛
片帆浮來千頃滄
居然載我泊南岸
湖水爲之風不颺
船回隱隱若有人
夜是牛女垂光芒
尼姑扶出一娘子
顏面是我前糟糠
欣然握手惻然哭
流淚如注波汪汪
疑人疑鬼問真假
斂衽對語聲琅琅
重圓樂昌破鏡半
復合延津神劍鏘
船燈相對若夢寐
苦旱如逢甘露霽
娘顏半凋玉石混
我腸猶餘金鐵剛
山頭小庵禮佛歸
湖海萍蹤今故鄉
新春燕返舊堂棲
雌和雄鳴飛畫樑
宗親咸集杜母泣
悲喜交並情沒量
吁嗟麟也獨何去
地老天荒難可忘
賢哉細君未吹薤¹⁴⁾

몸에는 날개 없어 날아갈 수 없으니
목숨이 끓는 물 앞 닭과 같이 되었다.
마름 노래 한 곡조에 사람 살리는 부처가
한 조각배로 천 이랑 물결 위를 떠 오누나.
급히 나를 실어 남쪽 언덕에 배 대는데
호수에도 바람 한 점 일지 않는다.
배가 도니 은은히 어떤 사람 있는 듯한데,
밤이 되어 견우·직녀가 별빛을 드리운다.
스님이 한 남자를 부축하여 나오는데
얼굴이 나의 조강지처와 같도다.
기빠서 손을 잡고 슬피 통곡하니
흐르는 눈물이 샘솟듯이 철철 흘러내린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眞假를 몰으니
옷깃을 여미며 하는 말, 그 소리 낭랑하다.
樂昌公主 깨어진 거울 다시 만나 하나 되고,
延平津에서 神劍이 다시 합쳐졌도다.
배의 등불 아래 마주 하니 꿈만 같아서
심한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하다.
아내 얼굴 반이나 상해 옥과 돌이 섞인 듯하나
내 속은 오히려 쇠처럼 굳건하여라.
산머리의 작은 암자에 예불을 드리고서
부평초처럼 떠돌다 이제 고향에 왔도다.
새봄에 까치 돌아와 옛 집에 깃들어
암수가 서로 노래하며 들보를 날아다니네.
종친들 모두 모이고 두부인도 흐느끼는데
희비가 교차하여 이내 정 헤아릴 수 없도다.
아아! 인아야 너만 어디 있느냐?
땅이 늙고 하늘이 황폐하여도 잊을 수 없구나.
현명하도다! 아내여. 지난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14) 吹薤 : 懲羹吹薤의 준말로, 뜨거운 국을 먹다가 속을 데고 나면 냉채국을 먹을 때도 붙어서 먹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주로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又媒林娘色容莊	또 임씨를 증매하니 그 모습 장하도다.
新人迎處得舊子	새 사람 맞이할 때, 옛 아들을 얻었으니
婦德猶存感彼蒼	婦德에 저 하늘이 감격하였도다.
頭邊峭骨類先人	머리 가운데 우뚝 솟은 뼈는 선친을 닮았고
一角之夢眞非佯	뿔 달린 짐승의 꿈 진정 거짓 아니로다.
環惟舊物已還珠	집안의 옛 물건인 옥 반지는 이미 돌아왔고
麟果奇祥重弄璋	인아는 과연 기특하고, 거듭 아들도 낳았네.
棊纘人事十行文	바둑처럼 변화하는 인간사를 열줄 글로 쓰고서
再拜仰告先翁孃	돌아가신 부모님께 절하고서 고하노니,
吾門何幸有今日	우리 집안 얼마나 다행인가, 오늘이 있으니.
敎道無非宜祐彰	가르침 틀린 것 없어 마땅히 도우심 크도다.
黃陵廟下爲指路	皇陵廟 아래에서 길을 가르치시고,
白蘋洲邊催繫航	白蘋洲 가에 배 매어 놓게 하셨네.
風霜殘命賴不死	풍상 속의 남은 목숨 덕택에 죽지 않고
賢婦奇男團會相	어진 아내, 뛰어난 아들과 다시금 만났도다.
餘生到此愧先靈	남은 목숨 여기에 이르니 先靈께 부끄럽게도
忍說中年身近娼	중년에 몸에 창기를 가까이 하였도다.
終知貞潔乃雪冤	끝내 정결한 사람이 원통함을 씻어낸다는 것 알겠고,
始覺凶淫還及殃	비로소 음흉한 사람 도리어 재앙 받는다는 것 깨닫도다.
喬娼就蓋董賊誅	교녀는 목매어 죽고 동청은 죽임을 당하였고,
事如仙瓜爬背痒 ¹⁵⁾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였도다.
金銀若報妙喜恩	금은으로 묘희의 은혜 보답하려 한다면
我家傾財猶不妨	우리집 재산 다 기우려도 문제 될 것 없다네.
袈裟欲繡此願未	袈裟에 이 전말 수놓고서
留與師尼藏佛箱	스님께 드려 佛箱에 남겨 두고 싶어라.
從今但願不相離	이제부터 다만 바라는 것 서로 이별 않고서
宜室宜人壽且康	아내로 남편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뿐.

15) 仙瓜爬背痒 : 원망을 은덕으로 갚은 고사를 의미한다. 춘추시기 양나라 대 부 송취는 초나라와 이웃한 현의 현령이 되었다. 양과 초는 모두 오이를 길렀는데, 양에서 물을 잘 주어 오이가 더욱 좋았다. 초나라 사람이 이를 미워하여 양의 오이에 흙집을 내었으나, 송취는 오히려 초의 오이에 물을 대게 하여 초의 오이가 잘 자라게 하였다.

<參考 文獻>

柳振漢, 『晚華集』, 清節書院, 1989.

李養吾, 「謝氏南征記後序」,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김동욱, 『증보 춘향전연구』, 연세대출판부, 1976.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 연구」, 『문학과 언어』 12, 문학과언어학회, 1991.

류준경, 「「만화본 춘향가」 연구」,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문과, 2002.

박혜숙, 「한국 한문서사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2집, 한국한문학회, 1998.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 반도출판사, 1991.

이래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 19, 대동한문학회, 2003.

이수봉,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 試譯」, 『개신어문연구』 6, 충북대학교, 1991.

정길수, 「道康瞽家婦詞」의 형식과 목소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정하영, 「「사씨남정기」 한역시 考」, 『연민학지』 1호, 1993.

최광현, 「만화본 춘향가 연구」, 한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Abstract

*A study on 「Yuhalmim-Yung-Sabuin-Go-Sadang-ga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
/ Ryu Jun Kyung**

Yu Jin-Han's 「Yuhalmim-Yung-Sabuin-Go-Sadang-ga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 is a narrative poem of 「Sasi-Namjung-gi 謝氏南征記」 in Sino-Korean in the late Chosun. I tried to analyze the narrative feature and the meaning of the poem. First, I investigated the identity of the original text. As a result, I could know that he had read 「Sasi-Namjung-gi 謝氏南征記」 that Kim Chun-Taek 金春澤 had had translated into Sino-Korean.

And then I analyzed the feature of the narrative world in the poem. I uncovered that the process of separation and meeting of Yu Yunsu 劉延壽 and Sasi 謝氏 was figured in this poem. And that the distinguished feeling of love between them was stood out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Sasi, who had been an ideal type in the character in 「Sasi-Namjung-gi」, changed into the lifelike character. These features are an aspect of a nobleman's reading of 「Sasi-Namjung-gi」 in 18th century and a new 「Sasi-Namjung-gi」 which was embodied as a narrative poem.

【Key words】 narrative poetry in Sino-Korean, 「Sasi-Namjung-gi 謝氏南征記」,
Yu Jin-Han 柳振漢, 「Yuhalmim-Yung-Sabuin-Go-Sadang-ga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

투고일 : 5월 6일, 심사일 : 6월 6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

* A professor in Sungshin University / newjune@sungshin.ac.kr